

대전시 노인복지관 역할 및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장창수



기본연구 2018-05

대전시 노인복지관 역할 및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장창수

연구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기본연구 2018-05

대전시 노인복지관 역할 및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45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삼성디자인기획 TEL 042-221-3111 FAX 042-221-51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제언】

■ 연구 배경 및 목적

-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기 진입과 노인인구 내의 다양성 증가, 새로운 형태의 노인문제의 증가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에도 변화가 요청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전광역시 노인환경을 살펴보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복지관 종사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역할 및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대전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노인복지관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분석함.
- 전문가(FGI)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전환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에 반영하고자 함.

■ 연구 결과

□ 설문조사 분석 결과

- 노인복지관의 인지도와 이미지
 - 노인복지관 인지도의 경우 예비노년층의 7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

으며, 복지관을 노인의 여가취미기관, 노인 종합서비스 기관, 저소득층 여가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복지관 이용 노인)

-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이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서, 취미와 여가생활을 위해서, 건강회복을 위해, 점심식사해결을 위해서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관 사업 중 확대 또는 축소사업에 대한 종사자 의견

- 현재 노인복지관 사업 중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는 정서 및 사회활동 사업, 취미여가사업, 고용(일자리)사업, 위기노인지원 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재 사업 중에서 축소가 되기를 바라는 사업으로는 노인고용(일자리)사업, 주거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가족기능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확대 및 축소사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인고용사업’은, 현장 직원 대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확대 대상사업이면서도, 축소를 원하는 사업으로 나타남.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지원확대(인력과 예산 등)가 필요함을 시사함.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중요(선호)도 결과

- 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종사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문화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단순)취미활동과 동아리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전문가 인터뷰 결과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과 과제

-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인 여가와 취미기능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근 나타나는 노년기 정서문제와 우울, 자살, 고립감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 및 기능의 전환이 필요함.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질적인 향상이 필요하며,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년기 발달과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와 지원 방향

- 경로당,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 유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한편, 노년기 발달과업에 따른 셀프케어, 부부관계 개선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노인복지관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을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 정책제언

○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양적 및 질적인 향상 도모

- 현재,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평생 및 여가프로그램을 조정하되 선호도나 만족도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함.

○ 예비노년층을 위한 확대 및 축소사업 논의

- 종사자들이 원하는 노인복지관의 축소사업으로는 노인고용(일자리)사업, 주거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가족기능사업의 순으로 나타났음. 노인 고용사업은 실제로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중요한 사업임.
- 그러나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지원(인력과 예산 등) 확대가 요청됨.
- 사회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됨. 가령, 노후 설계와 준비, 성(性)상담, 유산상속, 재산증여, 성년후견제도, 웰다잉, 가족 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노인복지관의 연계기능 강화 및 특성화

- 노인복지관은 경로당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셀프케어 프로그램, 부부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특화할 필요가 있음.
- 유성구의 사례에서 행복네트워크를 통해 유성구 지역 노인을 사례관리 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즉, 노인복지관 자체가 허브 역할을 수행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이 노인복지관의 인력 규모나 운영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기보다는 복지관별로 일부 프로그램을 특성 화하고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장 서론	3
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2절 연구방법과 구성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5
2장 이론적 배경	9
1절 급변하는 사회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9
1. 고령사회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9
2.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11
2절 노인복지관의 운영원리 및 사업	13
1. 노인복지관의 운영원리	13
2. 노인복지관의 사업구성	14
3절 선행연구 고찰	19
3장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	25
1절 대전시 노인복지환경	25
1. 대전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의 현황	25
2절 노인복지관의 현황	28
1. 대전시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28
2.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업현황	29
3. 일본의 노인복지관 사업 사례	29

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 분석	36
1절 설문조사 분석	36
1. 조사대상 및 방법	36
2.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36
3. 조사결과	38
2절 전문가 조사 분석	67
1. 조사 및 분석방법	67
2. 전문가 인터뷰 결과분석	69
5장 요약 및 정책제언	81
1절 주요내용 요약	81
1. 양적 실태조사 결과	81
2. 전문가 조사결과 요약	83
2절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91
부록 1. 설문지	93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99
부록 3. 연구참여자를 위한 질문지	100

표 목차

[표 2-1] 노인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10
[표 2-2]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	18
[표 2-3] 선행연구 정리	21
[표 3-1]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25
[표 3-2]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26
[표 3-3] 대전시 자치구의 연령별 노인 1인가구 현황	27
[표 3-4]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2016년 12월)	28
[표 4-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요도 실태조사 내용	37
[표 4-2] 성별 분포도	38
[표 4-3] 연령 분포도	39
[표 4-4] 학력 분포도	40
[표 4-5] 혼인상태 분포도	41
[표 4-6] 가족형태 분포도	42
[표 4-7] 거주지 분포도	43
[표 4-8] 주관적 건강상태 분포도	44
[표 4-9] 주관적 경제상 분포도	45
[표 4-10]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의 인지여부와 이용의사	46
[표 4-11]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 이미지(복수응답)	47
[표 4-12] 예비노년층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48
[표 4-1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	49
[표 4-14] 노인복지관 이용기간(년)	50
[표 4-15] 확대사업 순위(1,2순위)	52
[표 4-16] 축소사업 순위(1,2순위)	54
[표 4-17] 노후준비도	55
[표 4-18] 평생교육	56
[표 4-19]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 중요도	57

[표 4-20] 건강생활 프로그램	59
[표 4-21] 상담 및 정보제공의 중요도	60
[표 4-22] 정서 및 사회참여의 중요도	61
[표 4-2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도	62
[표 4-24] 고용 및 소득지원 프로그램 중요도	63
[표 4-25] 독거 및 재가노인지원 프로그램 중요도	64
[표 4-26] 가족기능사업 프로그램 중요도	65
[표 4-27] 그 밖의 프로그램 중요도	66
[표 4-28] FGI 연구참여자 현황	67
[표 4-29] 집단인터뷰 일정	68

서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2절 연구방법과 구성

1장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우리사회는 2025년에는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긴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며, 이제 노인은 소수가 아닌 보편적인 정책대상자로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노년기의 여가, 취미, 사회활동은 노년기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사업(2018년)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12개사업 148,351백만원(지방비포함)이 투입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크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그 동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의 여가와 취미활동 등이 수행되어져 왔는데, 사회적 변화에 함께 노인복지관도 조금씩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에는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 노인 인구내의 다양성의 증가, 새로운 형태의 노인문제가 발생 등이 원인이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이 등장하면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에도 변화를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3번의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연구를 실시했었고(2007년과 2012년, 2017년),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지금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은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복지관이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노년세대를 위한 사회참여와 여가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실행하고 있는지,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역할을 해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 노인인구 비율은 11.5%(2017년)이며,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부머 세

대(2017년 기준 만 54-62세) 32만명 수준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0%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는 6개 노인복지관이 자치구별로 운영 중이며, 60세 이상의 일반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향후 급증하는 베이비부머들(1955-1963년생)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전지역의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능의 다양화와 역할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노인복지관 정체성 형성을 점검해 봄으로써 미래의 역할과 기능의 발전적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은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졌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노인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복지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분석과 함께 복지관 이용 노인과 예비노년층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중요)도 조사를 통해서 확대 및 축소 사업의 논의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노인복지환경과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¹⁾,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중요도)를 조사하고, 전문가 인터뷰 분석을 반영하여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노인복지환경을 파악하고, 현재 노인복지관의 현황과 기능을 살펴보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역할 및 프로그램 선호도(중요도)를 조사한다. 또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대전지역 노인복지관의 미래지향적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 중에서 베이비부머세대인 1963년생(만 55세)~1955년생(만 63세)을 예비노년층으로 구분하였음.

2절 연구방법과 구성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노인복지관 현황,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사업 등 이론적 배경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 노인복지관 기능전환, 재정립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현황(프로그램 및 만족도)을 살펴보았다.

셋째,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선호도(중요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넷째, 노인복지관 현장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전망을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둘째,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선호도(중요도)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 조사대상: 이용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종사자 등 350여명
- 조사내용: 노인복지관 인지도, 프로그램 선호도, 정책건의(역할) 등
- 조사방법: 1:1 설문조사

넷째,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한다.

- 노인복지 전문가, 기관 종사자, 학계 등 전문가 집단 FGI 실시

이론적 배경

1절 급변하는 사회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2절 노인복지관의 운영원리 및 사업

3절 선행연구 고찰

2장

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급변하는 사회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1. 고령사회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것이며, 2037년에는 1,555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6).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올해(2018년), 노인인구의 급속한 양적증대는 노인복지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부터 시행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도시지역 거주비율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후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등 기존의 노인인구와는 다른 형태의 노인인구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정경희, 2016).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의 노인층과는 달리 전문지식 및 기술보유, 정보 이용능력 등 우수한 인적자본의 특성을 지니므로 사회활동, 여가, 일자리 등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여가시간을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휴식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고 있으나(평일 하루평균 여가시간이 50대 이하 약 2.8시간, 60대 3.6시간, 70대 이상 4.7시간), 적극적인 여가활동 참여율은 60대 21.5%, 70대 이상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6).²⁾

노인복지관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인 노인여가, 노인일자리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공급주체

2) 문화체육관광부, 2016국민여가활동조사.

들이 생겨나고 있다.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노인복지관이 운영해오던 사업을 유사한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주체를 다양화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2000년부터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60%이상 운영하는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기능특화 사업을 실시 운영을 보조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총 26개 기관이 있으며 이 중 노인기능특화복지관은 2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기관들은 노인여가 및 평생교육, 재가서비스 등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2015: 원영희·최혜지, 2015 재인용).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로당(19.2%), 시군구(공공)기관이 13.8%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노인들의 인지도나 이용자 측면에서 노인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노인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단위: %)

구분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시군구 읍면동	학교	공공 문화회관	사설문화 센터 등	기타
참여율	34.8	19.2	2.5	5.7	13.8	1.1	10.5	7.7	4.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노인실태조사.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두고 국공립 및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 사이에서 지역사회보호의 중심기구로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2.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노년기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의 대표적인 기관이 노인복지관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나타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기능, 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목표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자원연계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5)는 노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현행 노인복지관이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머물러 있어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의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화된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이 드러난다고 기술하였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기능들은 2007년에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제시한 모델의 사업과 연속성상에 있다고 보여 진다.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여기서는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초창기에 법의 제정과 복지관의 설립 동기, 국가의 지원과 절차의 과정, 노인복지관 평가,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는 과정은 필요하다.

다만,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던가 1인가구의 증가, 세대의 변화,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사회적 욕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인복지관은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관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내부조직 안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정체성을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노인자원봉사 사업과 고령자취업 및 노인일자리아업 등은 인적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예방기능을 통한 노인의료비절감, 노인복지비용의 절감 등의 생산적 기능으로서 고령사회 노인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15년)에서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서 평생교육지원사업과 취미여가지원사업 운영에서 지역의 문화센터, 여성발전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대학 내에 설치된 평생학습관, 지자체나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 다양한 시설들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제2절 노인복지관의 운영원리 및 사업

1. 노인복지관의 운영원리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는 2011년에 노인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총 8개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원칙은 아래와 같다.

① 지역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특성과 지역노인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수립 시 반영,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적극 개발·활용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에 의하여 각종 서비스가 계획·제공되어야 하며,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은 물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책임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서비스 이용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자율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

인종합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통합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원활용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여야 한다.

⑦ 중립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투명성의 원칙

노인종합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관의 사업구성

1) 사업유형 구분

현재 노인복지관의 사업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과 선택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기본사업은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으로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사업,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등이 있다.

선택사업은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이므로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사업 제외), 주거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 및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이 있다.

2) 사업별 세부내용

① 평생교육 지원사업

노년기의 연장과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 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프로그램 등이 있다.

② 취미 여가 지원사업

노인들의 의미 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예능활동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있다.

③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 지적 능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 요양서비스, 영양 공급 등 지원 등이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지원사업에는 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상담, 건강교실 운영(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미용 사업이 있다. 또한 급식지원사업에는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 도시락배달, 푸드뱅크 사업이 있다. 기능회복

지원사업에는 물리치료, 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 (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이 있다.

④ 노인상담 사업

지자체는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상담이 가능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전문가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노인상담 담당 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적인 노인상담 교육과정(노인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기술, 면접 상담기법, 개입 및 평가 기법 등)을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담사업에는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심리상담을 비롯하여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계), 노인 성 상담, 노인자살예방사업, 복지 정보제공, 상담 등이 있다.

⑤ 정서 및 사회생활 지원사업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심리·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다.

⑥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 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독거노인돌봄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취약 노인에게 우선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⑦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노인재능 나눔 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 등 기본 및 심화 노인자원봉사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⑧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⑨ 노인주거 개선사업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⑩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저소득 노인에게 대한 후원금 연결과 은퇴 후 경제적 노후 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실시한다.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고용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노후준비교육 등이다.

⑪ 가족기능 지원 및 통합 지원사업

요보호노인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사업과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권익증진사업, 지역사회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표 2-2]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

대상	사업	세부사업
노인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인문학교육, 예비노인은퇴 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 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 활동
	건강생활	-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제조, 기제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사업(기존 재가 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 영양서비스: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상담사업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 상담 등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고용 및 소득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가족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3절 선행연구 고찰

노인복지관 기능재정립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7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의해 수행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반영되었다. 또한 2012년과 2017년에 다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가 시행되었다.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집단의 회의나 학술발표, 전문가의 선행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졌다(권중돈, 2013).

지금까지의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김수영(2004), 서울복지재단(2011), 권중돈(2013), 원영희 외(2015),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2007년, 2012년, 2017년) 등이 있다. 본 논문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결과물들로서 직접적인 선행 연구로 볼 수 있다.

김수영(2004)은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 제도적 규정이 이루어진 초기에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자 한 개인적 연구로는 최초의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기능과 방향을 같이하는 중요한 기능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임병우 외(2007) 등은 '노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한국노인복지관협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 8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기능과 목적 또한 노인복지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법에 명시됨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지던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진 연구로 볼 수 있다.

박영란 외(2011)의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전국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화하는 노인복지 환경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2007년도에 시행된 임병우 외(2007)의 노인복지관 진단 이후 5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복지민영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주체의 등장,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 및 100세 시대도래의 따른 다양한 계층의 노인육

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맞아 노인복지관의 거시적인 방향모색과 동시에 실천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 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영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조직정체성 이론 및 할당모델을 기반 하여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재 수행중인 사업을 분석하여 노인복지관 역할의 중심성과 고유성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노년기 진입 및 복합적 노인복지욕구 증가와 같이 기존에 꾸준히 논의되어 온 환경변화 외에 서울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사서비스 제공주체 확대'라는 변수에 대응하여 그 역할의 중심성과 고유성을 분석하였다.

권증돈(2013년)은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관의 미션, 비전, 목표와 하위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노인복지관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인복지관 기능의 위계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의 위계구조상 상위기능이 하위기능에 포함되고, 하위기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상위기능으로 규정하는 오류가 내포되어 있다.

셋째, 노인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노인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가족, 지역사회는 부차적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노인복지관 조직 자체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서비스 대상의 생활영역, 욕구 또는 문제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내용과 장소의 기준을 혼용하여 기능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노인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은 노인복지관의 시설규모와 인력기준에 따른 것으로, 노인인구나 지역사회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표 2-3]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년도)	연구주제
노인 복지관 기능과 역할	김수영(2004)	위상정립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임병우 외(2007년)	노인복지관 기능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01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연구
	박영란 외(2012년)	100세시대 노인여가 활동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중돈(2013)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원영희 외(2015)	핵심사업을 통해 본 노인복지관 역할의 중심성과 고유성
	보건복지부 외(2017)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
그 밖의 연구	박영란 외(2016)	노인복지관 표준성과 관리 매뉴얼
	지은구 외(2016)	노인복지관 유형화에 따른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연구. 성과측정도구 개발, 성과관리 척도집
	이준영 외(2016)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2015)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

1절 대전시 노인복지환경

2절 노인복지관의 현황

3장

3장 대전시 노인복지관 환경 및 현황

1절 대전시 노인복지환경

1. 대전시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의 현황

1) 대전광역시 노인 인구 규모

대전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8.2분기)집계 결과, 대전시의 노인인구는 184,961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절대적인 노인 인구수는 서구가 53,18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1,046명, 동구가 37,914명, 유성구가 28,386명, 대덕구가 24,430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노인의 성비는 76.9로 여성노인이 남성에 비해서 높고 노인의 문제는 여성노인의 문제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표 3-1]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구분	총계				노인인구 비율
		남	여	성비	
대전광역시(전체)	1,512,405	755,049	757,356	99.7	12.2
대전광역시(노인)	184,961	80,394	104,567	76.9	
동구	37,914	16,417	21,497	76.4	
중구	41,046	17,526	22,828	76.8	
서구	53,185	23,297	29,888	78.0	
유성구	28,386	12,217	16,169	75.6	
대덕구	24,430	10,598	13,832	76.6	

자료: 대전광역시. 『2018년2분기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2] 대전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전체 인구	1,503,664	1,515,603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1,512,405
노인 인구	130,245	135,740	142,979	150,651	158,329	165,528	171,568	184,961
백분율	8.66	8.96	9.38	9.83	10.34	10.90	11.33	12.23

대전광역시의 각 자치구별 노인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 3-3]과 같이 서구가 8,07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7,281명, 동구 6,915명, 대덕구 4,449명, 유성구가 3,784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전시 전체 노인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도는 65세~69세가 28.2%, 70세~74세가 25.0%, 75~79세가 21.8%, 80~84세가 15.6%, 85세 이상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이슈는 노인의 빈곤, 건강의 악화, 고립감, 고독사, 노인자살과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노인복지관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일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 1인 노인 가구의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3-3] 대전시 자치구의 연령별 노인 1인가구 현황

(2016년 기준)

구 분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대전	계	30,503 (100.0)	8,703 (28.5)	7,627 (25.0)	6,638 (21.8)	4,771 (15.6)	2,764 (9.1)
	남	8,062 (100.0)	3,084 (38.3)	2,113 (26.2)	1,473 (18.3)	887 (11.0)	505 (6.3)
	여	22,441 (100.0)	5,619 (2.05)	5,514 (24.6)	5,165 (23.0)	3,884 (17.3)	2,259 (10.1)
중구	계	7,281 (100.0)	2,051 (28.2)	1,917 (26.3)	1,584 (21.8)	1,122 (15.4)	607 (8.3)
	남	1,980 (100.0)	749 (37.8)	550 (27.8)	325 (16.4)	235 (11.9)	121 (6.1)
	여	5,301 (100.0)	1,302 (24.6)	1,367 (25.8)	1,259 (23.8)	887 (16.7)	486 (9.2)
동구	계	6,915 (100.0)	1,946 (28.1)	1,743 (25.2)	1,538 (22.2)	1,033 (14.9)	655 (9.5)
	남	1,883 (100.0)	701 (37.2)	479 (25.4)	381 (20.2)	192 (10.2)	130 (6.9)
	여	5,032 (100.0)	1,245 (24.7)	1,264 (25.1)	1,157 (23.0)	841 (16.7)	525 (10.4)
서구	계	8,074 (100.0)	2,310 (28.6)	1,984 (24.6)	1,759 (21.8)	1,271 (15.7)	750 (9.3)
	남	2,018 (100.0)	774 (38.4)	528 (26.2)	373 (18.5)	226 (11.2)	117 (5.8)
	여	6,056 (100.0)	1,536 (25.4)	1,456 (24.0)	1,386 (22.9)	1,045 (17.3)	633 (10.5)
유성구	계	3,784 (100.0)	1,132 (29.9)	900 (23.8)	782 (20.7)	630 (16.6)	340 (9.0)
	남	1,003 (100.0)	403 (40.2)	263 (26.2)	176 (17.5)	98 (9.8)	63 (6.3)
	여	2,781 (100.0)	729 (26.2)	637 (22.9)	606 (21.8)	532 (19.1)	277 (10.0)
대덕구	계	4,449 (100.0)	1,264 (28.4)	1,083 (24.3)	975 (21.9)	715 (16.1)	412 (9.3)
	남	1,178 (100.0)	457 (38.8)	293 (24.9)	218 (18.5)	136 (11.5)	74 (6.3)
	여	3,271 (100.0)	807 (24.7)	790 (24.2)	757 (23.1)	579 (17.7)	338 (10.3)

자료: 통계청 『2016년 인구총조사』.

2절 노인복지관 현황

1. 대전시 노인복지관 일반현황

1)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현황

대전시 노인복지관은 현재, 7개가 운영 중이며, 동구에 2개소, 중구에 1개소, 서구에 2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에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8대 사업 외에도, 일자리, 돌봄, 장기요양, 자살예방, 사회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전국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은 전체의 9.3%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시 노인 인구의 10%정도가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1개 기관 당 2,6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추정해볼 수 있다.

[표 3-4] 대전시 노인복지관 현황(2016년 12월)

구분	총계	구분
대전시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중구 소재
동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서구	서구노인복지관 서구 유등노인복지관	
유성구	유성구노인복지관	
대덕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2. 대전시 노인복지관의 사업현황

대전시의 노인복지관은 기관별로 기본 및 선택사업을 지역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기관별로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보고서를 출간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업현황을 정리하였다.

1) 대전시립노인복지관

대전시립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교육을 통한 노인의 역할 제고 및 자긍심 향상 등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참여, 70대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평생교육, 건강교육 등 프로그램의 만족도에는 절반이상이 매우 만족한다라고 답변하였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가 72.6%로 나타났다. 신규 프로그램 수요로는 치매교육,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고급과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계층별, 연령별 평생교육의 맞춤형도 필요하며,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평생교육진흥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2)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교육을 통한 노인의 역할 제고 및 자긍심 향상 등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평생교육)은 어르신들의 사회변화 적응과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었고, 취미 여가 프로그램은 신체적 활동을 통한 적극성을 되찾아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집단생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과 자신감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체조(21%), 포켓볼(10%), 탁구(9%) 순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노인대학 운영에 대한 의견으로는 동아리반 연습 공간 필요, 악기연습 공간 원함, 교육과목 증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대학은 평생교육 측면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인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화의 수단으로 노인들의 문화의 터전이 되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방침(2017년)은 첫째, 지역 노인복지관으로서의 화합, 나눔, 소통을 실천하는 복지관과 둘째, 인격과 재능이 균형있게 조화된 인재양성 셋째,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더불어 살아가는 노인복지관 실현(이용자가 자치적 노력으로 함께 변화하는 문화 형성)에 두고 있다. 직원은 32명이며, 이용자는 4천여명이며, 일반이용자가 3,228명으로 많다. 70대 이용자가 50%, 80대 이용자는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등이다. 동구지역은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해 각종 노인문제들이 발생함에 있어 노인의 우울, 소외, 고독 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참여기회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으로 노인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들의 건강관련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건강정보제공이나 예방교육 이외에 노인의 건강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건강검진의 연계나 전문분야의 검진기회의 제공에 대해서도 욕구가 높았다. 즉각적인 욕구반영이 되는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기본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며 지역노인들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사업, 필수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욕구가 곧 사업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취미여가지원에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동구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이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하다. 이를 위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참여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관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보강,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공간 부족문제, 편의시설 부족문제, 식사장소 불편 문제 등 각종 시설에 대한 불편은 통합적 복지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의 기능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4)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문제의 예방과 치료, 노인의 복지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도모, 노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3개국의 18개 사업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등이 있다. 건강교실·교양교실·취미교실·동아리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사회교육(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강생 유입의 저조, 수강생들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상쇄하고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버파크순찰대사업 참여자들 대부분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만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은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전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문제의 예방과 치료, 노인의 복지욕구충족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

도모, 노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유성구노인복지관 사업만족도는 전체 평균 3.07(5점척도)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그 중 경로식당(3.25), 생신잔치 및 신입회원환영회(3.22), 효도관광(3.18), 평생교육(3.17), 안마·족욕 서비스(3.15)가 높게 나타났다. 복지관 시설에 대해 이용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지관 시설에 대해 이용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강당시설에 이용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시설 확충 및 개선 시 노인의 이용 공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성구노인복지관 6개 사업 중 26개 복지지원서비스 이용요구 우선순위 10개를 살펴보면, 1순위 경로식당운영, 2순위 생신잔치, 3순위 신입회원환영회, 4순위 건강관리서비스, 5순위 효도관광, 6순위 경로잔치, 7순위 평생교육사업, 8순위가 물리치료 및 의료연계서비스, 9순위가 복지관 북카페, 10순위가 위생 및 영양급식서비스로 나타났다.

3. 일본의 노인복지관 사업 사례³⁾

가와사키시의 「가와사키시고령사회복지종합센터」는 고령자의 재택복지사업과 시설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보건복지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사회복지종합센터는 인재개발연수센터, 보건복지연구센터, 특별양호노인홈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들이 연계되면서 교육·보건의료·복지를 통합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재택복지와 시설복지를 동시에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실버인재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고령자 일(업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회원이 희망하는 일(업무)과 수요자(가정, 공공단체, 기업 등)가 필요로 하는 일(업무)의 내용 간의 매치가 일어날 때 취업이 가능한데, 센터가 이를 조정하여 고

3) 고승한(2015). 일본 가와사키시의 고령사회대응 정책과 시사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vol. 244에서 재인용.

령자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버인재센터와 지역사회(공공단체, 기업, 가정 등) 간 협력체계를 갖추어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층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고, 대신에 고령자들의 능력, 경력 그리고 기술적 수준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버센터와 더불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가사업무, 회사업무, 공공업무, 지역사회 서포트 업무 등의 분야에서 발굴된 다양한 일자리는 취업 희망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과 취업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취업 희망 고령자 자신이 가진 성별, 학력, 경력, 기술, 일터 접근성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일할 직종 선택과 일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는 것이 장점이다.

실버인재센터처럼 고령자 취업의 편리성과 접근성, 그리고 취업 신청과 절차 및 과정의 간편성, 고용증대와 소득창출의 지속성 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노인복지관의 일자리사업 재편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 분석

1절 설문조사 분석

2절 전문가 조사 분석

4장

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 분석

1절 설문 조사 분석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과 예비노년층,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1월말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으며, 훈련받은 조사원이 1:1 면접을 통해 조사하거나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과 종사자는 조사원이 6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배포하고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은 편의표집방식을 사용하였다. 총 354명이 응답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132명, 예비노년층 131명,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가족관계, 혼인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총 40문항으로 현행 노인복지관사업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복지관 이용 노인과 예비노년층은 노후준비에 대해 조사하였고, 복지관 이용 노인들로 하여금 복지관을 이용하게 된 이유, 예비노년층에게는 복지관 인지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에게는 확대 및 축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표 4-1]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요도 실태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인구사회적 특성	응답자(복지관 이용 노인, 종사자, 예비노년층) 연령, 성별, 학력, 거주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혼인상태, 가족형태, 주관적 건강상태, 경제상태
프로그램 중요도	평생교육(5), 취미여가(5), 건강생활(8), 상담(3), 정서 및 사회참여(6), 주거(2), 고용(3), 독거노인(4), 가족(3), 기타(1)
예비노년층의 복지관인지도	복지관 인지도, 이용의사,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노인복지관의 이미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복지관 이용 이유, 이용기간 등
노인복지관 종사자	향후, 확대사업과 축소사업의 순위
노후준비 (이용 노인+예비노년층)	경제적 준비, 건강준비, 여가준비, 사회참여

3. 조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1) 성별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중 남성은 50.8%, 여성은 49.2%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남성이 49.2%, 여성이 50.8%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남성이 44.0%, 여성이 56.0%로 나타났다.

[표 4-2] 성별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67	50.8	64	49.2	40	44.0
여성	65	49.2	66	50.8	51	56.0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2) 연령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도는 [표 4-3]과 같다. 복지관 이용 노인 중 70대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80대가 22.7%, 60대는 10.6%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50대가 58.0%로 높았으며, 60대는 42.0%로 나타났다. 복지관 종사자는 20-30대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4.1%, 50대 7.7%, 60대가 3.3%로 나타났다.

[표 4-3] 연령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20-30대	-	-	-	-	50	54.9
40대	-	-	-	-	31	34.1
50대	-	-	76	58.0	7	7.7
60대	14	10.6	55	42.0	3	3.3
70대	88	66.7	-	-	-	-
80대+	30	22.7	-	-	-	-
합계	132	100.0	131	100.0	91	100.0

(3) 학력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중 ‘고졸’ 학력자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졸’(23.7%), ‘초등졸’(22.9%), ‘대졸’(19.1%), ‘대학원이상’(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민의 경우는 ‘고졸’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36.6%), ‘중졸’(13.7%), ‘대학원이상’(6.9%), ‘초등졸이하’(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관 종사자는 ‘대졸’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이상’(18.7%), ‘고졸’(5.5%), ‘중졸’(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학력별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초등졸이하	30	22.9	3	2.3	-	-
중졸	31	23.7	18	13.7	1	1.1
고졸	43	32.8	53	40.5	5	5.5
대졸	25	19.1	48	36.6	68	74.7
대학원이상	2	1.5	9	6.9	17	18.7
합계	131	100.0	131	100.0	91	100.0

(4) 혼인상태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56.5%가 '기혼'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별'(38.2%), '이혼 및 별거'(3.1%), '기타'(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기혼'이 89.3%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별'(6.1%)로 나타났다. 복지관 종사자의 경우는 '기혼'이 63.7%로 높았으며, '미혼'(35.2%), '사별'(1.1%)로 나타났다.

[표 4-5] 혼인상태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미혼	-	-	2	1.5	32	35.2
기혼	74	56.5	117	89.3	58	63.7
사별	50	38.2	8	6.1	1	1.1
이혼및별거	4	3.1	2	1.5	-	-
기타	3	2.3	2	1.5	-	-
합계	131	100.01	131	100.0	91	100.0

(5) 가족형태

응답자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가족 형태는 '부부가족'이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인가구'(35.6%), '노인+자녀+손자녀'(7.6%), '부부+자녀'(6.1%), '기타'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부부+자녀'가구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족'(35.1%), '1인가구'(8.4%), '기타'(1.5%), '노인+자녀+손자녀'(0.8%)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부부+자녀'형태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부가족'(15.4%), '1인가구'(15.4%), '기타'(4.4%), '노인+자녀+손자녀'(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가족형태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부부가족	65	49.2	46	35.1	14	15.4
부부+자녀	8	6.1	71	54.2	56	61.5
노인+자녀+손자녀	10	7.6	1	0.8	3	3.3
1인가구	47	35.6	11	8.4	14	15.4
기타	2	1.5	2	1.5	4	4.4
합계	132	100.0	131	100.0	91	100.0

(6) 거주지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29.5%는 동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구'(18.9%), '유성구와 대덕구'(17.4%), '서구'(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에는 '유성구'(23.1%), '서구'(21.5%), '대덕구'(19.2%), '동구' (18.5%), '중구'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종사자는 '동구'(31.9%), '서구'(25.3%), '중구'(16.5%), '유성구' (15.4%), '대덕구'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거주지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동구	39	29.5	24	18.5	29	31.9
중구	25	18.9	23	17.7	15	16.5
서구	22	16.7	28	21.5	23	25.3
유성구	23	17.4	30	23.1	14	15.4
대덕구	23	17.4	25	19.2	10	11.0
합계	132	100.0	131	100.0	91	100.0

(7)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매우 건강’이 6.9% ‘건강함’이 33.6%로, 전체적으로 40.5%가 건강하다고 했으며, 7.6%는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매우 건강’이 13.8%, ‘건강함’이 35.4%로, 전체적으로 49.2%가 건강하다고 했으며, 7.7%는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종사자는 ‘매우 건강’이 11.0%, ‘건강함’이 59.3%로, 전체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03%가 건강하다고 했으며, 7.7%는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주관적 건강 상태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안 좋음	2	1.5	1	0.8	-	-
안 좋음	8	6.1	9	6.9	7	7.7
보통	68	51.9	56	43.1	20	22.0
건강함	44	33.6	46	35.4	54	59.3
매우 건강	9	6.9	18	13.8	10	11.0
합계	131	100.0	130	100.0	91	100.0

(8)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분포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32.6%가 중간이하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16.3%가 중간이상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라고 응답하였다. 예비노년층의 35.9%가 중간이하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라고 응답하였고, 9.2%가 중간이상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23.1%가 중간이하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라고 응답하였고, 7.7%가 중간이상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9] 주관적 경제수준 분포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빈도	%	빈도	%	빈도	%
하	9	7.0	9	6.9	3	3.3
중하	33	25.6	38	29.0	18	19.8
중간	66	51.2	72	55.0	63	69.2
중상	17	13.2	12	9.2	7	7.7
상	4	3.1	-	-	-	-
합계	129	100.0	131	100.0	91	100.0

2)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 인지도와 이미지 등

(1) 노인복지관의 인지 여부와 이용의사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6.9%, ‘모른다’는 응답자가 27.7%,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4%로 나타났다. 이용의사를 살펴보면, ‘가능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78.3%로 높았으며, ‘다른 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6.3%,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5.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의 인지여부와 이용의사

구분	예비노년층	
	빈도	%
인지도	알고 있다	87 / 66.9
	모른다	36 / 27.7
	이용경험이 있다	7 / 5.4
이용의사	가능한 이용하고 싶다	101 / 78.3
	다른 여가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싶다	21 / 16.3
	이용하고 싶지 않다	7 / 5.4
합계	130	100.0

(2)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미지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종합서비스 기관’이 20.0%,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시설’이 18.7%, ‘노인 편의시설로서 이용하는 곳’이 15.2%,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 14.9%, ‘일반 노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8.3%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1]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복수응답)

구분	예비노년층	
	빈도	%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	75	20.0
저소득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70	18.7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는 곳	86	22.9
일반 노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여가시설	31	8.3
노인 편의시설로서 이용하는 곳	57	15.2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곳	56	14.9
잘 모르겠다	-	-
기타	-	-
합계	375	100.0

(3)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예비노년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노후준비의 어려움'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26.0%, '건강의 악화' 11.9%, '문제없음'이 9.3%, '취업에 대한 걱정'이 8.4%,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이 5.3%, '자녀교육과 양육'이 1.8%, '기타'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2] 예비노년층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예비노년층	
	빈도	%
아무런 문제없음	21	9.3
경제적 어려움	59	26.0
건강의 악화	27	11.9
취업에 대한 걱정	19	8.4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	12	5.3
노후준비에 대한 염려	84	37.0
자녀교육과 양육	4	1.8
기타	1	0.4
합계	227	100.0

3)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복지관 이용 이유

(1)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와의 만남’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와 여가 생활’이 18.4%, ‘건강회복 및 체력유지’가 16.8%, ‘점심식사 해결’이 13.3%, ‘배움의 기회’가 11.8%,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가 6.6%, ‘취업이나 일거리 마련’이 6.0%, ‘상담’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노인의 대부분이 70-80대이며, 1인가구가 1/3 수준임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가 취미와 여가, 식사,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자	
	빈도	%
건강회복 및 체력유지	87	16.8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	104	20.1
점심식사 해결	69	13.3
취미와 여가생활	95	18.4
배움의 기회	61	11.8
취업이나 일거리 마련	31	6.0
상담	18	3.5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18	3.5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34	6.6
기타	-	-
합계	517	100.0

(2) 노인복지관 이용기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이용기간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40%가 3-5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년이라는 응답이 33.1%, 1-2년이 15.4%, 11년 이상이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70-80대이며, 노인들이 취미와 식사, 배움 등을 통해서 3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나타나고 있다.

[표 4-14] 노인복지관 이용기간(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자	
	빈도	%
1-2년	20	15.4
3-5년	52	40.0
6-10년	43	33.1
11년이상	15	11.5
합계	130	100.0

4)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복지관사업 확대 및 축소 의견

(1) 향후, 확대해야 할 사업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사업 중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해 1, 2순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종사자의 기준에서 사업에 대한 확대와 축소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우선순위 고려를 통해서 그 중요도를 다시 한 번 체크해보았다.

조사결과, 1순위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정서 및 사회활동’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여가지원’이 18.2%, ‘노인고용’과 ‘위기노인 지원’이 각각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서도 ‘정서 및 사회활동’이 21.6%로 높았으며, ‘노인 상담’이 13.6%, ‘위기노인지원’이 12.5%, ‘취미여가 지원’이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중돈(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노인복지관 확대기능으로 사회참여, 가정방문, 문화여가, 고용지원, 평생교육 서비스 기능의 순으로 나타났고, 축소기능으로는 노인행사지원, 장기요양, 치료 및 재활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추해보면, 우리지역은 노인 1인가구의 증가, 고독사 증가, 높은 고립감, 우울감, 높은 자살률 등과 같은 새로운 노인문제와 맞물려 정서 및 사회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인 취미여가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위기노인 지원 사업도 지속할 필요성에서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4-15] 확대사업 순위(1,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평생교육 지원 (한글, 외국어, 교양 등)	8	9.1	4	4.5
취미여가 지원 사업 (예술, 문화, 체육, 취미 등)	16	18.2	9	10.2
건강회복 및 증진사업 (물리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	3	3.4	6	6.8
정서 및 사회활동 (우울 및 자살예방 등)	20	22.7	19	21.6
노인의 상담 (개인, 가족, 치매 등)	8	9.1	12	13.6
노인자원봉사, 클럽활동 등	5	5.7	7	8.0
노인주거지원 (주택수리, 도배 등)	-	-	2	2.3
노인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 취업 등)	10	11.4	6	6.8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 자립)	10	11.4	11	12.5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등)	5	5.7	5	5.7
가족통합사업 (가족상담, 세대통합 프로그램)	3	3.4	5	5.7
기타	-	-	2	2.3
합계	88	100.0	88	100.0

(2) 향후, 축소해야 할 사업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사업 중 축소해야 할 사업에 대해 1, 2순위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노인고용’이 1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사업’이 13.8%, ‘평생교육’이 13.8%, ‘가족기능지원’이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 응답에서는 ‘가족기능사업’이 22.4%로 축소사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사업’이 17.6%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는 관련된 유사사업이 많고, 소득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담당 인력도 적어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어려워하는 사업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확대사업으로 3순위를 나타냈으며, 노인빈곤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관에서 수행하기에 다양한 어려움(인력부족, 사업실적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소사업으로 1순위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맞는 인력배치와 사업수행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례적용이 많지 않고, 예산비용이 높고 주거지원과정(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에서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축소사업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선호도가 낮아졌고, 단시간에 걸쳐 효과성을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기능사업과 같은 경우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와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중복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복지관에서 대상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중돈(2013)의 연구결과에서 종사자들은 지역노인행사지원, 장기요양서비스 기능, 치료 및 재활서비스 기능, 자율 및 동아리활동 지원, 경로당 방문 서비스 기능 등의 순으로 축소하길 바라고 있었다.

[표 4-16] 축소사업 순위(1, 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평생교육 지원 (한글, 외국어, 교양 등)	12	13.8	10	11.8
취미여가 지원 사업 (예술, 문화, 체육, 취미 등)	8	9.2	8	9.4
건강회복 및 증진사업 (물리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	10	11.5	4	4.7
정서 및 사회활동 (우울 및 자살예방 등)	-	-	4	4.7
노인의 상담 (개인, 가족, 치매 등)	3	3.4	5	5.9
노인자원봉사, 클럽활동 등	7	8.0	6	7.1
노인주거지원 (주택수리, 도배 등)	12	13.8	15	17.6
노인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 취업 등)	13	14.9	5	5.9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 자립)	2	2.3	2	2.4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등)	11	12.6	7	8.2
가족통합사업 (가족상담, 세대통합 프로그램)	7	8.0	19	22.4
기타	2	2.3	-	-
합계	87	100.0	85	100.0

5) 노후준비도(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예비노년층)

(1) 노후준비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과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현재의 노후 준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경제적 준비는 3.40점, 건강준비 3.47점, 여가준비 3.55점, 사회참여 준비 2.97점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경제적 준비 3.12점, 건강준비 3.14점, 여가준비 2.87점, 사회참여준비는 2.46점으로 나타났다.

[표 4-17] 노후준비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평균	sd	평균	sd
경제적 준비	3.40	1.02	3.12	.88
건강준비	3.47	.89	3.14	.85
여가준비	3.55	.88	2.87	.94
사회참여(자원봉사 등)준비	2.97	1.25	2.46	1.17

6)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중요도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요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은 ‘노후준비’(4.03)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화 교육’(3.71), ‘인문학 교육’(3.50), ‘외국어 교실’(3.0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글교실(2.93)의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 예비노년층도 복지관 이용 노들과 유사하게 ‘노후준비’(4.27)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화 교육’(4.08), ‘인문학 교육’(3.88), ‘외국어 교실’(3.67), 한글교실(3.1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노후준비’(4.42) > ‘정보화교육’(4.29) > ‘외국어 교실’(3.6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문학 교육’(3.54)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예비노년층은 비교적 인문학강의와 노후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한글과 외국어교실, 노후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18] 평생교육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한글교실	2.93	1.37	3.16	1.35	3.59	0.93
외국어 교실 (일어, 영어, 중국어 등)	3.00	1.23	3.67	1.03	3.61	0.71
정보화 교육 (컴퓨터, 스마트폰 등)	3.71	1.21	4.08	0.95	4.29	0.67
인문학 교육 (인문학 강의 등)	3.50	1.17	3.88	1.01	3.54	0.83
예비노인 노후준비 (노년기 준비 등)	4.03	0.92	4.27	0.91	4.42	0.67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2) 취미와 여가프로그램의 중요도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체육활동'(4.25)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활동'과 '동아리활동'(3.83), '예능활동'(3.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미활동'(3.36)의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 예비노년층은 '예능활동'(4.05)의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문화활동'(3.99), '체육활동'(3.97), '동아리활동' (3.84), '취미활동' (3.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체육활동'과 '예능활동'(4.04) > '문화활동'(3.95) > '취미활동'(3.74) > '동아리활동' (3.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예비노년층은 예능과 문화활동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취미활동 비중이 높았으며, 현재 이용 노인들은 체육과 동아리활동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19]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등)	3.74	1.14	4.05	0.91	4.04	0.73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등)	3.83	0.99	3.99	0.91	3.95	0.70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등)	3.36	1.18	3.34	1.25	3.74	0.74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등)	4.25	1.00	3.97	0.98	4.04	0.83
동아리활동(친목 모임 등)	3.83	1.10	3.84	1.01	3.63	0.91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3) 건강생활

건강생활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물리치료 등’(4.52)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교육 과 상담’(4.49), ‘경로식당’(4.47), ‘건강교실’(4.34),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4.08), ‘밑반찬·도시락 배달 등’(3.57), ‘이·미용서비스’(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야간보호’(3.31)의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 예비노년층은 ‘물리치료 등’(4.55)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교육과 상담’(4.38), ‘건강교실’(4.23),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4.17), ‘경로식당’(4.07), ‘주·야간보호’(3.89) ‘밑반찬·도시락 배달 등’(3.75)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프로그램은 ‘이·미용 서비스’(3.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경로식당’(4.29) > ‘건강교육과 상담’(4.26) > ‘건강교실’(4.18) > ‘밑반찬·도시락 배달 등’(4.13) >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4.10) > ‘물리치료 등’(4.01) > ‘주·야간보호’(3.34) > ‘이·미용 서비스’(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물리치료’,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교실’, ‘경로식당’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도시락배달’, ‘치매 프로그램 등’의 비중이 높았다. 예비노년층은 ‘건강교육과 상담’, ‘이·미용서비스’, ‘치매·뇌졸중 프로그램’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20] 건강생활 프로그램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4.52	0.80	4.55	0.69	4.01	0.84
건강교육, 건강상담 (치매예방, 성인병예방 등)	4.49	0.81	4.38	0.72	4.26	0.63
건강교실 (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4.34	0.92	4.23	0.79	4.18	0.61
이·미용 서비스	3.55	1.38	3.62	1.10	3.24	0.97
경로식당(중식서비스)	4.47	0.87	4.07	0.98	4.29	0.76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3.57	1.31	3.75	0.94	4.13	0.81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4.08	1.11	4.17	0.82	4.10	0.76
주·야간보호	3.31	1.29	3.89	0.92	3.34	0.90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4) 상담 및 정보제공의 중요도

상담 및 정보제공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심리와 치매상담’(3.91)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일반상담’(3.83), 전문상담(3.51)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심리와 치매상담’(4.21)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일반상담’(4.02), 전문상담(3.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들도 ‘심리와 치매상담’(4.34)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일반상담’(4.15), 전문상담(3.95) 순으로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이용 노인과 예비노년층보다 중요도 평균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용 당사자들보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상담 및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더 체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4-21] 상담 및 정보제공의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자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노인상담(일반상담 등)	3.83	0.99	4.02	0.88	4.15	0.63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 연금, 세무)	3.51	1.10	3.91	0.89	3.95	0.81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 상담 등	3.91	1.05	4.21	0.88	4.34	0.60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5) 정서 및 사회참여

정서 및 사회참여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3.91)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자원봉사’(3.63), ‘죽음준비’(3.55), ‘교통안전봉사’(3.50), ‘집단 및 자조모임 등’(3.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클럽활동(3.38)의 중요성이 가장 낮았다. 예비노년층은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4.27)의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죽음준비’(4.00), ‘노인자원봉사’(3.94), ‘교통안전봉사’(3.75), ‘집단 및 자조모임 등’(3.69), ‘동아리클럽활동’(3.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4.41) > ‘죽음준비’, ‘자원봉사’(4.22) > ‘집단 및 자조모임 등’(4.00), ‘교통안전봉사’(3.62), ‘동아리클럽활동’(3.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현재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이용 노인이나 예비노년층에 비해서,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 ‘자조모임’, ‘자원봉사’ 영역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예비노년층은 ‘교통안전봉사’와 ‘동아리활동’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점수가 종사자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정서 및 사회참여의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자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3.91	1.03	4.27	0.69	4.41	0.68
죽음준비 프로그램	3.55	1.09	4.00	0.94	4.22	0.68
집단 및 자조모임 등	3.43	1.12	3.69	0.93	4.00	0.73
노인자원봉사	3.63	1.23	3.94	0.88	4.22	0.57
교통안전봉사	3.50	1.18	3.75	0.93	3.62	0.77
동아리클럽활동	3.38	1.22	3.66	0.97	3.59	0.77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6)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3.42)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수리사업’(3.13)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주거환경 개선사업’(3.79), ‘주택수리사업’(3.68) 순으로, 복지관 이용 노인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주택수리사업(3.78) > 주거환경개선사업(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주택수리사업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예비노년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2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주택수리사업	3.13	1.24	3.68	0.93	3.78	0.77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배, 장판 교체 등)	3.42	1.20	3.79	0.97	3.75	0.78

(7) 고용 및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고용 및 소득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3.92)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자취업지원사업’(3.85), ‘경제 및 취업교육’(3.66)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4.50)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자취업지원사업’(4.43), ‘경제 및 취업교육’(4.3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4.36)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자취업지원사업’(4.19), ‘경제 및 취업교육’(4.07) 순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점수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보다 상대적 평균점수가 높았다.

예비노년층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 및 취업교육’에 대한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현재 복지관 이용 노인들이 느끼는 중요도는 낮은 편이었다.

[표 4-24] 고용 및 소득지원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92	1.07	4.50	0.66	4.36	0.78
고령자취업지원사업	3.85	1.16	4.43	0.73	4.19	0.80
경제 및 취업교육	3.66	1.21	4.32	0.78	4.07	0.74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8) 독거 및 재가노인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요도

독거 및 재가노인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노인들은 ‘취약노인의 지원사업’(3.92)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3.73), ‘방문간호’(3.66), ‘가정봉사원파견사업’(3.62)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 ‘취약노인의 지원사업’(4.35),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4.11), ‘가정봉사원파견사업’(3.97), ‘방문간호’(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취약노인의 지원사업’(4.34),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4.25), ‘가정봉사원파견사업’(3.74), ‘방문간호’(3.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취약노인의 지원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방문간호’ 프로그램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25] 독거 및 재가노인지원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취약노인의 지원사업	3.92	1.14	4.35	0.69	4.34	0.72
가정봉사원파견사업	3.62	1.17	3.97	0.90	3.74	0.81
방문간호	3.66	1.18	3.95	0.98	3.64	0.88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3.73	1.19	4.11	0.90	4.25	0.71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9) 가족기능사업 프로그램 중요도

가족기능사업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가족상담’(3.14)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프로그램’(3.12), ‘가족캠프 등’(3.05)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도 ‘가족상담’(3.47)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프로그램’(3.38), ‘가족캠프 등’(3.32)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도 ‘가족상담’(3.88)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관계프로그램’(3.85), ‘가족캠프 등’(3.51)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등’에 있어서 예비노년층이나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보다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26] 가족기능사업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가족상담	3.14	1.22	3.47	1.14	3.88	0.71
가족관계프로그램	3.12	1.23	3.38	1.15	3.85	0.76
가족캠프 등	3.05	1.21	3.32	1.09	3.51	0.82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10) 그 밖의 프로그램 중요도

그 밖의 카페운영, 영화관, 도서관, 경로행사, 나들이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들은 '나들이 등'(4.33)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경로행사'(4.07), '도서관 운영'과 '영화관람실 운영'(3.48), '카페운영'(3.20) 순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나들이 등'(3.98) > '경로행사'(3.95) > '영화관람실 운영'(3.68) > '도서관 운영'(3.59) > '카페운영'(3.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나들이 등'(3.89) > '경로행사'(3.81) > '카페운영'(3.62) > '도서관 운영'(3.52) > '영화관람실 운영'(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은 '카페운영'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예비노년층은 '영화관람실 운영', '도서관 운영'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고, 현재 이용 노인들은 '경로행사'와 '나들이 등'의 중요도 비중이 높았다.

[표 4-27] 그 밖의 프로그램 중요도

구분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카페, 북카페 운영	3.20	1.04	3.57	1.02	3.62	0.76
소규모 영화관람실 운영	3.48	1.06	3.68	1.05	3.41	0.84
도서관 열람실 등 운영	3.48	1.08	3.59	1.08	3.52	0.81
경로행사	4.07	0.93	3.95	0.88	3.81	0.71
나들이(문화체험) 등	4.33	0.76	3.98	0.90	3.89	0.84
합계	132	100.0	130	100.0	91	100.0

2절 전문가 조사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1) 참여자 선정방법

양적연구에서 미흡한 노인복지관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의 방향성, 조직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노인복지 실천현장의 전문가와 중에서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의도적으로(purposive selection)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연구자의 질문은 각 영역마다 조금씩 상이하였지만,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노인복지관의 변화, 프로그램의 방향성, 조직운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내용은 <부록>을 참조하면 된다. FGI 연구 참여자 현황은 아래 [표 4-28]과 같다.

[표 4-28] FGI 연구참여자 현황

번호	영역	성별	구분
A	박종석 (현장전문가)	남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국장
B	박용인 (현장전문가)	남	대덕구노인복지관 팀장
C	유재룡 (현장전문가)	남	유성구노인복지관 관장
D	윤경아 (학계전문가)	여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 조사방법 및 분석

인터뷰는 노인 관련 전문가 4명으로 노인복지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계 전문가와 노인복지관의 경력이 높은 국장, 팀장, 관장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에서 2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표 4-29] 집단인터뷰 일정

조사방법	일시	면담자
집단인터뷰	18. 3. 20	동구, 대덕구
	18. 3. 23	유성구 및 학계

인터뷰 시간은 1회당 약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자가 인터뷰에 앞서 연구 목적과 진행과정 설명 후 동의된 고지(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였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토론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자료는 필사본(transcription)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인터뷰 내용 전체를 필사해 전사본을 작성하였고, 반복하여 읽으며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일차분석 후 선별된 개념들을 토대로 대주제(상위범주)와 소주제(하위범주) 및 주요개념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각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인터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2. 전문가 인터뷰 결과분석

1) 노인복지 환경변화와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우리사회가 베이비부머세대의 노년층 유입과 현재 노인인구와의 차별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과거와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예비노년층 세대와 지금 노인 세대와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관의 취미여가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노인세대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년기 정서와 우울, 노인자살, 고독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나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법개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략)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엔 베이비부머 세대에도 예비노년층이 노후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취미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중략) 이미 들어왔던 70세 80세 90세 세대가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 복지관에 계시거든요. 포화상태예요. 새로이 유입되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어디로 수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거예요. 만일 **80, 90세대가 빠지고 다음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좀 나올 것인데, 그런 문제점도 제고를 해봐야하지 않냐 싶습니다. (A)

요즘 노인인구의 증가 및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서 여가복지시설로의 역할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노인문제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우울이나 치매 가족과의 단절들이죠.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전만 하더라도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부분들은 (노인복지관은) 여가의 기능보다는 정서나 사회참여의 기능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A)

첫 번째가 노인복지법 안에서도 노인복지관의 설치기준 그다음 두 번째가 종사자 배치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는데 부수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해야 할 기능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해서 FGI를 실시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A)

전체적인 것은 결과로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노인복지법 안에 설치기준들이 좀 더 세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종사자의 기준도 기본적인 인력에서 필요 인력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노인복지관 사업 안내를 보면 좀 더 분리표가 6대 기능에서 플러스 돌봄사업이란 기능이 하나가 추가되어 7대사업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에 받쳐서 좀 세분화되어 정리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노인복지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A)

저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해야한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가 노노(老老)부양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는 부모를 모시지만 밑으로는 요즘에 갱거루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샌드위치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특히 베이비붐세대는요. (중략)자녀들이 은퇴에 접어드니까 자기들이 부양할 수도 없고 서로 부담되니 서로 나몰라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교육을 하거나 내가 나이든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하나~ (C)

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과 중점 방향

노인복지관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복지관은 여가프로그램이 많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감, 우울감, 고립감 등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미 다른 기관에서 취미여가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복지관에서까지 중복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보다는 복지관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자원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소규모 동아리 모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관계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순위가 복지관 왜 이용하냐고 했을 때, 이용자들이 친구와의 만남을 20.1%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독감이나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결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선상에서도 보면 종교 지원,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한다고 봐요. (A)

노인복지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제는 지금은 여가나 이런 쪽이지만 다음에는 **생존의 문제, 직업도 없으면 안돼요**. 또 내가 얻어야 할 정보를 못 얻게 되니깐, **노후 난민시대가 되는거예요**. 우리 복지관도 조금씩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천원이니(점심식비)까 외부에서 있다가 점심 때 되면 외부에선 4~5000원 이면 복지관은 1000원이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힘들다. (C)

(노인복지관이)여가로 노인복지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여가는 이미 다 있잖아요. **문화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센터가 많기 때문에 여가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부분인데** (중략) 저희 복지관에서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마련하려고합니다. 앞으로는 상속의 문제 등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산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안 모신다면 누구한테 호소한다든가? 호소하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복지관이 해줘야하고. (C)

또 내가 배드민턴을 배우려면 어디가면 되고 등산을 하려면 어디를 가면 되고 요것만 코디를 해주고, 그럼 우리가 지금 대덕대학과 연결해서, 바리스타 교육 하는데 바리스타교육을 우리가 받고 교육은 거기서 하고 컴퓨터도 우리거보다 더 좋으니 거기서 작업하고 이렇게 복지관이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과 연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모집은 우리가 해주지만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로 윈윈전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C)

그게 셀프케어인 것 같아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보면 감사일기 쓰기 이런 건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조금 된대요.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질 좋은 인간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좋은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기회.. 대규모로 만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식사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그렇진 않은데, 우리도 약간 그런가요? 동아리모임들이 있잖아요. **동아리모임들처럼 소규모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룹이 생성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D)

제가 최근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 아티클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중에 어르신들에게 관계형성을 어떻게 한 것에 따라 자기 노년의 질이 달라진대요. 그런데 특히 남자의 경우는 주로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 오다가 갑자기 은퇴를 다 해버리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중심으로 관계로 전환**이 된대요. 그런데 이 관계전환이 안되면 굉장히 어렵다는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역사회중심의 관계로 연결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복지관이 흔치 않아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있다하면, 신성동과 **이런 주변의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지역의 관계를 맺어주는**, 신성동 자원봉사 그렇게 해서 맺어주는 관계형성을 빠르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과목이 필요하겠지요. 관계형성의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C)

3)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

현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양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며, 노인복지관은 사회의 변화, 노인문제의 변화와 정책반영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노년기 발달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의 셀프케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중략) 결국은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매뉴얼 안에서 어떻게 나중에 그것을 다시 재분류하거나, 사업 분류로 통합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져가야(중략), 치매센터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추가된 내용으로 사업내용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중략) 2017년도에 역할 기능에서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혼선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회 변화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당면과제**로 느껴지거든요. (B)

저는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상담기능의 강화를 말씀을 했지만 기존의 여가복지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하게 강좌수가 대개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해요. 그런 차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좀 더 변화를 많은 부분 안에서 시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중략) 예전에 갖고 있는 노인의 인식과는 지금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

스트레스 관리차원에서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운동요법, 식이요법, 명상** 이런 것을 셋트로 해주는 것이 물리치료보다는 훨씬 나올 것 같아요. (D)

노인복지관이니까 **노년기 발달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노년기 웰다잉 이라든지 자서전쓰기 그런 사업들 사전 의료서를 쓴다든지 노년기 발달과업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할 것 같고 노년기의 재사회화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돈 관리나 가족관계라든지 뭔가 그동안 했지만 노년기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가족관계에서라든지 경제생활에서 그런 교육들도 노인복지관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중략) **셀프케어** 쪽은 스트레스관리는 큰 스트레스 아니면 좀 관리하면 좋아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요법 식이요법** 그런 것들을 셋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기능도 조금 강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인지 행동치료 같은 거 노년기에 우울이나 불안이 심각하잖아요. (D)

4) 경로당 등의 유관기관들의 관계 및 역할 방향

참여자들은 현재, 유관기관에서 하는 유사사업이라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의 기능 안에서 종합적인 수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새로운 복지관이나 센터를 증설하기 이전에 복지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셀프케어 프로그램,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은 노인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으로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 같은 경우엔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엔 미인가 경로당까지 노인복지관에서 커다란 중점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의 정책적인 부분 안에서 미인가 시설까지 경로당과 연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마련을 했고요,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연관되어있는 장기요양기관과의 어떤 부분, 중복성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복적이지 않은 곳에서는 소소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비스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경로당 쪽에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조금 약간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A)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부문제 이게 지금 심각해요. 베이비붐 세대 보건복지부에 나왔던 것에서 50프로가 불만족 30프로가 이혼을 생각해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지금은 줄흔도 있고 이 특히 노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 그런데 이 부부관계가 깨지면 깨짐과 동시에 이 사람이 독거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취약해지면 자살로 이어지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도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중략) 이미 75세 이상 분들은 굳어있어요. 아무리 그런 교육을 해도 안 받아들이지만, 전기노인은 훈련하면 되는 것 같아요. 노부부의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부분이 뭐냐면 아내를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거예요. (D)

결국 노년기의 삶은 관리예요. 인간관계관리하고 자기 생활 관리하고 건강관리하고 이런 걸 익히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고 자기도 자율적으로 살기 어렵고 관리방법을 연습하고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략)어떻게든 운동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떻게든 **셀프케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장치**를 붙여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관리해줘요? 자기가 관리 안하면, 결국은 가족이나 사회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D)

우리가 경로당협의체에서 연초에 서로 조율을 하는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거다 그럼 그 사업은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자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60군데 필요한 자원들을..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지원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유성구는 더 특별한 거는 유성구 행복네트워크가 있어요. **복지만 아니라 문화고용 이런 단체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로 있어서 거길 통해서** 우리가 아동하면 아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중략) (C)

서로서로 윈윈하니까 이게 **자원도 절약되고 자기 시간과 에너지 돈이 절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좋은 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필요한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관계를 통해서 자본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노인복지도 노인복지관도 그 지역사회 관련된 기관과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이루면 훨씬 우리가 자원이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노인복지관은 결국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 네트워크의 역할, 연결 해주고. (C)

5)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복지관의 절반이상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낮고, 근로자들이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종사자 처우개선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새로운 노인복지관의 설립되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차별화된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제일 애로사항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에 대한**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다수가 계약직직원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규직과 계약직직원의 두 가지 형태의 근로형태를 운영을 하다보면 첫 번째는 계약직 직원 같은 경우엔 근로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 그다음에 급여의 차이에 대한 이직률이 높은 분들, 그러다보니 사업의 안정성이 없는 거죠. (중략)기본적으로 기본인력배치 플러스 사회복지사로는 7~8명밖에 안되요. 이용자 대비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해야할 사업량이 너무 많은 거죠. (A)

저도 지금 생각이 이견 개수(복지관의 양적인 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사실은 하나 더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수 부족이기 때문에 (중략)중구에 없으니까 하나 더 해달라 이거는 지협적인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하는 여력이 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 모델이 될 만한 다량하게 노인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면서 또한 대전시 모든 노인들의 노인복지 이런 것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중략)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콤플렉스를 기존의 모델로 해야 되고 차별화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C)

(중략) 새로운 정책, 새로운 센터를 만들다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적인 기능의 형태를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더 강화를 시키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중략)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소규모의 노인복지관이나 장기요양기관이나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와 관련된 센터라든지 많이 있지만요(중략) 이런 기능들은 기존에 있던 기능들과고, **노인복지예산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구축이 되면 더 좋겠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단지 그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중략) 앞으로는 그런 종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을 두루두루 하되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해서 그런 시스템화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A)

6) 노인복지관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개선점

노인복지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구인의 어려움, 계약직의 정규직화, 시설의 노후화 보강사업, 시설관리운영비의 현실화, 특히 노인고용 및 일자리사업에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대전 같은 경우 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올해기준 총 약 90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물가의 상승률 대비 운영비가 사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몇 년 동안 반복한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흑한기나 흑서기 냉난방비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달에 57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 년에 따지고 봤을 때 운영비에서 공과금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50~60%를 차지를 하거든요. **운영비 현실이** 사실(어려워요) (A)

매월 관장님들의 월례모임과 사무국장의 월례모임 연간 공통된 사업들을 정해서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이나 중간관리자를 위한 사업 다양한 형태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A)

대전 노인복지관 협회 차원에서 간사님들이 연대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등 정부에서 해줘야할 것은 **계약직의 안정화, 정규직화** 되었으면 되고 저희 상근직원 40명중에 18명이 정규직이고 반 이상이 계약직이고 이 계약직원이 1년 2년 많이 가야 3년인데 보통 2년 안에서 계약직원의 수난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B)

그러니까 그 일자리 **업무로드가 일반적 직원에 비해서 많고 직원은 적은데 (노인들이) 몇 십명이 오는거예요.** 그럼 그것을 혼자 못하잖아요. 그럼 그 등록하고 싸인 받고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이 자기 업무도 있는데 그걸 같이 해줘야 되고,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를 도와줘야하니까.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설문조사에서 노인고용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축소해야 될 사업 1순위도 노인고용사업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C)

요약 및 정책제언

1절 주요내용 요약

2절 정책제언

5장

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절 주요내용 요약

1. 양적 실태조사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복지관이용노인과 베이비부머세대인 예비노년층, 종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중 남성은 50.8%, 여성은 49.2%로 나타났으며, 70대가 66.7%, 60대는 10.6%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은 남성이 49.2%, 여성이 50.8%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자’가 40.6%, ‘대학졸업자’가 36.6%로 나타났다.

복지관 종사자는 남성이 44.0%, 여성이 56.0%로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이 74.7%, ‘기혼’이 63.7%, ‘미혼’이 35.2%로 나타났다.

2) 예비노년층의 노인복지관 인지도와 이미지 등

노인복지관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66.9%, ‘모른다’는 응답자가 27.7%로 나타났다. 이용의사를 살펴보면, ‘가능한 이용 하겠다’는 응답자가 78.3%로 높았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2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종합서비스 기관’이 20.0%, ‘저소득층 노인의 여가시설’이 18.7%로 높았다.

3)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이용 이유와 기간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친구와의 만남’이 20.1%, ‘취미와 여가생활’ 18.4%, ‘건강회복 및 체력유지’ 16.8%, ‘점심식사 해결’ 13.3%,

‘배움의 기회’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관 이용 노인의 40%가 3-5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10년이라는 응답이 33.1%로 높았다.

4)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복지관사업 확대 및 축소 의견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사업 중 확대해야 할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정서 및 사회활동’이 2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여가지원’이 18.2%, ‘노인고용’과 ‘위기노인 지원’이 각각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소사업 1순위의 응답에서 가장 많은 응답은 ‘노인고용’이 1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사업’이 13.8%, ‘평생교육’이 13.8%, ‘가족 기능지원’이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노후준비도(복지관 이용 노인+예비노년층)

복지관 이용 노인의 경제적 준비는 3.40점, 건강준비 3.47점, 여가준비 3.55점, 사회참여 준비 2.97점으로 나타났다.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경제적 준비 3.12점, 건강준비 3.14점, 여가준비 2.87점, 사회참여준비는 2.46점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별 프로그램의 중요도

(1) 복지관 이용 노인

현재 복지관 이용 노인은 노후준비, 체육활동, 물리치료, 건강교육, 건강교실, 경로식당, 치매뇌졸중 프로그램, 심리·치매·노인학대 상담,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취약노인지원, 경로행사, 나들이체험 등의 프로그램 중요도가 컸다.

(2) 예비노년층

정보화교육, 노후준비, 예능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물리치료, 건강교육,

건강교실, 경로식당, 치매뇌졸중프로그램, 노인일반상담, 심리·치매·학대상담, 우울자살예방, 죽음준비, 노인자원봉사, 노인일자리, 고령자취업, 경제교육, 취약노인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나들이체험, 경로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가 컸다.

(3) 노인복지관 종사자

정보화교육, 노후준비, 예능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물리치료, 건강교육, 건강교실, 경로식당, 밑반찬도시락배달, 치매뇌졸중, 노인상담, 심리·치매·학대상담, 전문상담, 우울자살프로그램, 죽음준비, 집단자조모임, 자원봉사, 일자리, 고령자취업, 경제 및 취업교육, 취약노인,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프로그램 중요도가 컸다.

요약해보면, 세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그 중요성이 큰 프로그램은 노후 준비프로그램, 문화체육활동, 건강관련 프로그램, 노인상담(일반+심리), 우울 자살예방프로그램, 경로식당, 노인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용 노인 과와 예비노년층은 나들이, 경로행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으나, 종사자들은 그 영역에서 중요도가 낮았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그리고 문화 및 체육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외국어, 인문학 등)에 대한 중요성은 비교적 3집단 모두 높지는 않았고, 취미활동(종이접기, 뜨개질 등), 동아리활동의 중요성도 높지 않았다. 이·미용서비스나 주·야간보호프로그램,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문간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족기능사업의 중요성도 3집단에서 모두 낮았다.

2. 전문가 조사결과 요약

1)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변화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세대의 예비노년층과 현재 노인인구와의 사회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의 차별화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취미여가기능의 한계를 인식하는 한편, 노년기 정서와 우울, 노인자살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과 중점 방향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감, 우울감, 고립감 등의 정신 건강과 노인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취미여가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는 여가 프로그램 보다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취미와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자원연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규모 동아리 모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관계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3)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

현재,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며, 노인복지관은 사회의 변화, 노인문제의 변화와 정책반영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노년기 발달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4) 경로당 등의 유관기관들의 관계 및 역할

경로당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관이나 센터를 증설하기 이전에 복지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셀프케어 프로그램,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정부의 운영 지원 요청과 개선사항

노인복지관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노인복지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프로그램 운영비와 구인의 어려움, 계약직의 정규직화, 시설의 노후화 보강사업, 시설관리 운영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절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축소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과 선호도 조사결과가 확정적인 의미는 아니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입법과 행정, 학계, 현장, 노인당사자 간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인 모델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을 주제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와 역할 및 기능강화 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

첫째, 노인복지관의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유료 (전문)프로그램 확대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수준을 높이고, 복지관 재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의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저소득노인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의 다수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향후 취약계층과 일반 노인들을 구분하여 실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의 모든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이나 여가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킹과 연계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선호도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노년층을 포함한 전기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노후설계와 준비, 성(性)상담, 유산상속 및 재산증여 관련 법률, 성년후견

제도, 웰다잉(well-dying), 가족 간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 전문 강사를 통한 전문프로그램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비교적 예비노년층은 현재 노인과 달리 문화와 취미활동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확대 및 축소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복지관으로서 어려운 일이다. 가령,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실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서 종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기능회복지원서비스는 당뇨나 고혈압 등 성인병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과 다양한 증상에 대한 운동처방 등 인 만큼 이를 대안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인력의 한계와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축소를 원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배치와 사업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확대사업 중에서도 노인정서와 사회활동, 노인고용, 위기노인 지원사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축소사업 중에서 평생교육이나 주거개선사업, 가족기능사업 등은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축소나갈 필요가 있다.

2) 노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 강화

첫째, 노인복지관이 유관기관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은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복지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경로당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관이나 센터를 증설하는 것보다 복지관의 종합적인 기능을 더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셀프케어 프로그램, 부부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유성구의 사례에서 행복네트워크를 통해 유성구 지역 노인을 사례관리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즉, 노인복지관 자체가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은 우수한 사례로 보여 진다.

둘째, 노인복지관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노인복지관의 인력규모나 운영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하기보다는 복지관별로 일부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요양서비스나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과 같은 사업도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관의 예산과 결산과 사업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와 관리 감독을 매년 받도록 하되,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노인복지관별로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서비스나 경로당 프로그램사업도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복지관(예: 대덕구 노인복지관 사례)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촘촘한 연계망을 형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 경기복지재단(2013).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분석.
- 고승한(2015). 일본 가와사키시의 고령사회대응 정책과 시사점. 정책이슈브리프. vol.244. 제주발전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17). 인구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분석 5: 노인사회참여 및 여가 대책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2015). 노인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권중돈(2011). 베이비부머의 노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역할 변화. 제9차 베이비부머 세대 미래구상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중돈(2013).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서울시노인복지관 세미나 발표자료.
- 김수영(2004). 위상정립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2004년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pp. 19-43.
- 김수영(2004). 위상정립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
- 대전광역시(2018). 2018 2/4분기 주민등록통계.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국민여가활동조사.
- 박영란 외(2012). “100세 시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보건복지부·한국노인복지관협회.
- 박영란 외(2015). 노인복지관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 개발 보급사업-노인복지관 표준성과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보건복지부(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2007). 노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2012). 100세시대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종합사회복지관협회(2017). 2017년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연구보고서(중간발표).
- 서울복지재단(2011). 노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연구.
- 원영희·최혜지(2015). 핵심사업을 통해 본 노인복지관 역할의 중심성과 고유성 (서울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연구. 12(2). 105~136.
- 이윤경·염주희·이선희(2011).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준영 외(2016). 노인복지관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 개발 보급사업-노인 복지관 운영·사업실태조사 보고서.
- 임병우 외(2007). 노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노인복지관협회.
- 정경희·강은나·이윤경·황남희·양찬미(2016).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은하(201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 지은구 외(2016). 노인복지관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 개발 보급사업-노인 복지관 유형화에 따른 운영가이드 및 서비스 기준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 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통계청(2016). 2016 고령자통계.
- 통계청(2016). 2016 인구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 전국노인실태조사.
- 허준수(2004).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모색. 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기능 재정립.

부록 1. 설문지

대전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대전광역시 노인복지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2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장 창 수

연 락 처 : 530-3545

설문응답자 :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② 일반 시민: 만 55-63세 (1963년 ~ 1955년생)

③ 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전지역 노인복지관

근무자-----> 지위: ①일반직 ②선임사회복지사 ③과장, 팀장 ④ 사무국장, 부장, 관장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요도 조사 :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십시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구분		중요한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 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평생 교육	한글교실	①	②	③	④	⑤
	외국어 교실(일어, 영어, 중국어 등)	①	②	③	④	⑤
	정보화 교육(컴퓨터, 스마트폰 등)	①	②	③	④	⑤
	인문학 교육(인문학 강의 등)	①	②	③	④	⑤
	예비노인 노후준비(노년기 준비 등)	①	②	③	④	⑤
취미 여가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등)	①	②	③	④	⑤
	문화활동 (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등)	①	②	③	④	⑤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등)	①	②	③	④	⑤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등)	①	②	③	④	⑤
	동아리활동(친목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 생활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교육, 건강상담(치매예방, 성인병예방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①	②	③	④	⑤
	이·미용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경로식당(중식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①	②	③	④	⑤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주·야간보호	①	②	③	④	⑤
기타(무엇:)	①	②	③	④	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구분		중요한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 통	중요 함	매우 중요함
상담 및 정보 제공	노인상담(일반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택, 연금, 세무)	①	②	③	④	⑤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 상담 등	①	②	③	④	⑤
정서 및 사회 참여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죽음준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집단 및 자조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노인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교통안전봉사	①	②	③	④	⑤
	동아리클럽활동	①	②	③	④	⑤
주거환경 개선	주택수리사업	①	②	③	④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 교체 등)	①	②	③	④	⑤
고용 및 소득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고령자취업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경제 및 취업교육	①	②	③	④	⑤
독거 및 재가 노인지원 사업	취약노인의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①	②	③	④	⑤
	방문간호	①	②	③	④	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가족 기능	가족상담	①	②	③	④	⑤
	가족관계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가족캠프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카페, 북카페 운영	①	②	③	④	⑤
	소규모 영화관람실 운영	①	②	③	④	⑤
	도서관 연람실 등 운영	①	②	③	④	⑤
	경로행사	①	②	③	④	⑤
	나들이(문화체험) 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일반 시민(연령 만 55-63세)만 응답해주세요.

1. 노인복지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③ 이용 경험이 있다.

2. 향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가능한 이용하고 싶다.
② 다른 여가 및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싶다
③ 이용하고 싶지 않다(이유가 있다면 : _____)

3. 귀하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 ① 아무런 문제 없음 ② 경제적인 어려움
③ 건강의 악화 ④ 취업에 대한 걱정
⑤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 ⑥ 노후준비에 대한 염려
⑦ 자녀교육과 양육 ⑧ 기타(무엇:)

4. 노인복지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 ① 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
② 저소득계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③ 노인들이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는 곳
④ 일반 노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여가시설
⑤ 노인 편의시설로서 이용하는 곳
⑥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곳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무엇: _____)

다음은 현재 노인복지관 이용자만 응답해주세요.

1. 귀하께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건강회복 및 체력유지 ② 친구와의 만남과 교제
- ③ 점심식사 해결 ④ 취미와 여가생활
- ⑤ 배움의 기회 ⑥ 취업이나 일거리 마련
- ⑦ 상담 ⑧ 그냥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 ⑨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 ⑩ 기타(무엇: _____)

3.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신 총 기간은? 대략 _____년

4. 향후, 귀하께서 필요한 노인복지관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 취업 알선 등)_____)

다음은 노인복지관 직원분들만 응답해주세요.

1. 노인복지관 사업 중에서 확대 및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1. 향후 확대해야 할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2. 향후 축소해야 할 사업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평생교육 지원(한글, 외국어, 교양 등)
- ② 취미여가 지원 사업(예술, 문화, 체육, 취미 등)
- ③ 건강회복 및 증진사업(물리치료, 운동요법, 건강상담 등)
- ④ 정서 및 사회활동(우울 및 자살예방 등)
- ⑤ 노인의 상담(개인, 가족, 치매 등) ⑥ 노인자원봉사, 클럽활동 등
- ⑦ 노인주거지원(주택수리, 도배 등) ⑧ 노인고용 및 소득지원(고령자 취업 등)
- ⑨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취약노인 자립)
- ⑩ 가족기능지원(가정봉사원,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등)
- ⑪ 가족통합사업(가족상담, 세대통합 프로그램) ⑫기타(무엇: _____)

일반 시민과 노인복지관 이용자 분이 응답해주세요.

귀하의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후 준비	노후 준비 정도				
	충분히 하고있다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통 이다	거의 못한다	전혀 못하고있다
경제적 준비					
건강 준비					
여가 준비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모든 분이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이상
4. 귀하의 혼인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및 별거 ⑤ 기타
5. 귀하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① 매우 열악함 ② 열악함 ③ 중간 ④ 건강함 ⑤ 매우 건강함
6. 귀하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① 하 ② 중하 ③ 중간 ④ 중상 ⑤ 상
7. 가족의 형태는? ① 부부가족 ② 부부+자녀 ③ 노인+자녀+손자녀
④ 1인 가구 ⑤ 기타()
8. 현재 주거지역?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는 대전시 노인 1인가구의 특성분석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 1인가구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며, 인터뷰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인터뷰에 스스로 참여하고 인터뷰 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3월 일

FGI 연구참여자

(서명)

부록 3. 연구참여자를 위한 질문지

〈노인복지정책 및 실무 전문가〉

1. 노인복지 환경변화,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년층의 학력, 복지욕구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2. (메일로 초안이지만 보고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요) 아직 보고서가 초안이지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시고 향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느 것을 개선하고, 어떤 것에 중점으로 두어야 할까요?
 -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예비노년층, 노인복지관 종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참조
3.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 중에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 경로당 등의 유관기관들의 관계에서 노인복지관의 역할분담 방향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대전시의 노인복지관 운영과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답답하게 느끼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 또는 바라는 점, 희망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6. 노인복지관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7. 기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